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제616호

지면안내 **04** 기획 노란봉투법, 상생의 법을 꿈꾸다 / **05** 사람사 부조리한 사회의 얼굴을 드러내다, PD 조성현 / **06** 학술 미래를 향한 두 번째 여정: 사용후핵연료 / **08** 기획 국립중앙박물관이 살아있다!

## 타운홀 미팅, 장학·학사·복지 정책 논의

지난 3일 '제4회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대학본부 관계자 14인과 학생대표 16인이 자리해 장학 및 학사 부문, 생활 및 복지 부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장학 및 학사 부문 안건

- 내년 등록금 운영 방침 표명 요구
- 다대 전공 수업 분반 증설 요청
- 블렌디드 수업 실패 점검 건의
- 과사무실 조교 근태 개선 촉구
- 캡스톤디자인 평가기준 공개 예정
- 강좌 폐강 사유 고지 요구
- 소수트랙 폐강 기준 완화 불가
- 법&정책트랙 교과목 개설 촉구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2026학년도 등록금 동결 방침과 국가·면학근로 유지 여부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올해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했다는 본부의 입장을 파악했다"며 "내년 등록금 인상 여부와 국가근로 및 면학근로, 국가장학금 유지방안 등에 대한 본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자인대학(이하 다대) 학생회는 ICT디자인학부 전공 분반 증설을 요구했다. 광다혜(ICT 3) 다대 학생회장은 "ICT디자인학부의 수업 수요가 커 타 학부생이 전공 수업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증가한 학생 수에 따라 전공 교육수준이 저하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글로벌협력처장은 "ICT디자인학부의 수업을 원하는 타 학부생이 많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장바구니 제도를 통해 수강



▲이영재 총학생회장(좌), 이창원 총장(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블렌디드 수업 운영 실태 점검 요청도 존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내용이 동일해 블렌디드 수업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함지현(인문 3)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은 "현재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수업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성적 확인을 위해 참여한다"며 "실질적 만족도 조사를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역설했다. 박용훈(학사운영팀) 팀장은 "지난해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신설해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며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건의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장명희 교학부총장은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종합적인 부분을 살피고 체제 개편 등에 대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공대 과

사무실 조교의 근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성진(산공 3) 공대 학생회장은 "조교의 출근 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으나 잦은 지각으로 오전 시간대에 과사무실 이용·문의하는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학기 전자과 전공기초 과목이 오기때까지만 조교의 늦은 출근으로 수강신청이 불가했던 사례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공대 내 근태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을 확인 후 교학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 매학기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캡스톤디자인 수상자 선정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보다 교내 교수진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며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우(컴공 4) 공대 부학생회장은 "수상자 선정 시 일부 교수진이 관리하는 팀이 채점에서 유리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박 팀장은 "내년부터 공대 교학팀에서 채점표를 사전 공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검토위원을 위촉해 평가 결과를 재차 확인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강좌 폐강 시 사유 고지를 요청했다.

배지현(사회과학 4)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단과대를 기준으로 인문예술대 7개, 사과대 12개, 다대 3개, 공대 16개,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6개의 강의를 폐지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폐강 사유가 고지되지 않아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폐강 기준은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전공 10명, 교양 20명 미만 시 폐강된다"며 "해당 기준에 의해서만 폐지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지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수트랙 폐강기준 완화 건의사항도 요구했다. 문정기(사회과학 2) 사과대 학생회장은 "스마트도시·교통계획트랙 등 사과대 내 일부 트랙은 소수로 이뤄져 트랙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신청해야 강의가 개설된다"며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해 폐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현재 1,355개 강좌 중 기준에 미달되는 강좌가 200개였지만 실제 폐강은 73개만 되는 등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 중이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정책트랙에 민법, 형법 등 법 관련 교과목 개설 증진해 달라는 요구도 뒤를 이었다. 문 회장은 "올해 진행된 진로탐색특강에서 로스쿨 특강이 열리는 등 법조계 진출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교육과정의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진로와 트랙 정체성 강화를 위해 법 관련 강좌의 개설을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현재 민법, 사법 등의 강좌 개설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은주 처장은 "법&정책트랙의 경우 학과 개편을 고려 중이며 행정학과를 기반으로 법 수업을 진행하거나 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면에 계속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 미승인 전시물 조력자, 근신 처분돼

지난 21일 미승인 전시물 설치 과정에 함께한 조력자에게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주범자와 조력자는 지난 6월 학내에 미승인 전시물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건 발생 후 대학본부는 경위 조사 후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지난 7월 1일 주범자에게 제적 처분을 내리고 조력자에게는 근신 처분을 부과했다.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력자는 주범자를 도와 미승인 전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력자는 연구관 여자 화장실 등에 미승인 전시물을 게시했으며, ▲연구관 승강기 ▲지선관 ▲상상파크 등지에서도 주범자와 함께 전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학본부는 징계위를 열어 조력자의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징계위는 『학생생활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8조 제11항에 따라 주범자와 마찬가지로 조력자를 '기타 학생신분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고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 기간은 총 7일이며 구체적인 근신 일자리는 2학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혁 학생진로취업처장은 "미승인 전시물 설치 과정에서 단순 가담에 그친 점과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세칙을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시행세칙의 '기타 학생신분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한성대신문

마음속에 머물던 생각, 글로 남겨보세요

# 독자칼럼 모집

<p><b>지원자격</b> 한성대학교 재학생</p> <p><b>주제</b> 자유 주제</p> <p><b>분량</b> 제목 제외, 공백 포함 1,100자</p> <p><b>혜택</b>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p>	<p><b>모집기간</b> 상시 모집</p> <p><b>접수방법</b>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해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p> <p><b>문의</b> 한성대신문사 02)760-4186</p>
---	--

# 본교 주요 현안 두고 열린 대화의 장

## 총장 “경청을 통해 학교 발전 도모할 것”, 총학 “대학 발전의 한 걸음이 되길”

###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창의관 내 시설 점검 강화
- 맥OS 수량 확보 요구
- 라운지 운영 지침 도입
- 학습공간 24시간 개방 건의
- 공학관 시설 개선 계획 질의
- 학생기구 홈페이지 개설 요청
- 통학로 이동접근성 증진 예정
- 학생기구 인터넷 접근 건의
- 학생 경비 지원 확대 촉구
- 학생기구 회의시간 보장 요구

생활 및 복지 부문에는 창의관 내 빔 프로젝터 노후화 점검 요청이 건의됐다. 이윤비(예산 4) 디대 부학생회장은 “창의관 강의실 내 빔 프로젝터 노후화로 인해 화질 저하가 심해져 수업에 피해를 끼친다”며 “전

체적인 점검 및 보수와 학생회가 시설사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전달했다. 조중집(학생복지팀) 팀장은 “빔 프로젝터와 관련해 ICT 학부에서 전수 조사 진행 후 관리를 통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며 “IT인프라팀이 자산안전관리팀에 검토를 요청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향후 자산감정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대 학생회는 맥OS 대여 수량 확보를 건의했다. 박 부회장은 “공대의 경우 4학년 전공필수 수강 시 맥OS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량 부족으로 대여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IT인프라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신 맥OS를 구매해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SW코딩라운지(이하 라운지) 예약

시스템과 운영 지침을 도입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신 회장은 “라운지 이용 시 별도의 예약 시스템과 운영 지침이 없어 학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돈(스마트융합교육센터) 부센터장은 “오늘자로 라운지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상상파크, 상상파크 플러스 라운지를 통합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상파크나 상상베이스 등 학습공간의 24시간 개방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주·야간 상관없이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도 상상파크 등의 공간에서 학습한다”며 “시험기간과 그 외 기간에도 해당 공간의 24시간 개방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문의했다. 이 부센터장은 “24시간 개방은 야간 잔류 신청 공간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 같다”며 “사고 등 리스크가 존재해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학관 A동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회장은 “본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돼 나온 지원금으로 공학관 1층 시설이 개선된 사항에 더해 차후 계획이 있는지 안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1년에 1층씩 차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대의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이하 학생기구) 홈페이지 개설을 건의했다. 이연준(컴공 4) 총대의장은 “학생기구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칙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처장은 “내년 3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 있어 건의사항을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총대는 셔틀버스 증차를 요청했다. 이 의장은 “셔틀버스 수량 부족으로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

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주형 총무처장은 “스쿨버스는 증차 대신 본교 아래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본교로 이어지는 언덕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교내 인터넷넷을 학생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의장은 “학생기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접근하지 못해 행정적 제약을 겪는다”며 “학생자치기구에도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이 처장은 “현재 전자결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접속하면 교내의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당장 제공하기에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총학은 학생회 행사 비용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트래제로 인해 학생의 소속감 결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학생활동

증진을 위한 대중제 등도 부실하게 운영돼 학생들에게 지원이 적은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돼 예산 증진을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김은주 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1월 말부터 수립 예정이므로 해당 사항을 반영해 학생들의 행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학생자치기구 회의시간 보장을 지한 학기에 이어 요구하며 총학생회장 직인을 통한 공문 인정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총 62명의 학생자치기구 학생회장이 시간을 맞춰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총학생회장의 직인을 통해서 수업 공결 협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조 팀장은 “충분히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 재학생 창업 지원하는 ‘창업트랙’ 신설

2026학년도부터 창의융합대학 소속 ‘창업트랙’이 신설된다. 창업트랙은 학생의 창업 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트랙이다. 사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학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창업트랙 전공기초 교과목과 2학년 전공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기존 재학생 및 타 학부(과)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트랙선택’부터 창업트랙을 제2트랙으로 선택 가능하다.

창업트랙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AI·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트랙 소속 학생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분석, 투자 유치 전략, 스타트업 경영 및 AI 기반 서비스 개발 등을 학습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가 수업에 참여해 사업계획서 자문 등의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문석(RISE사업단) 부단장은 “창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 모델을 활용해 학생들이 실행력과 사업화 역량을 직접 체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트랙 신설은 지난 5월 본

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선정된 것의 일환이다. 지난 2월 진행된 2024학년도 제15차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트랙의 신설이 확정됐다. 조 부단장은 “창업트랙의 필수 교과목과 타 대학 공유 교과목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창업트랙은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2026학년도 신입생 실기고사 실시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실기고사(이하 실기고사)가 지난 10월 18·19일과 26일에 걸쳐 진행됐다. 18일은 예술학부(무용, 회화), 19·26일은 ICT디자인학부 학생 선발을 위한 실기고사가 치뤄졌다. 모집인원은 총 126명이며 지원인원은 총 2,894명으로 22.9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탐구관 ▲낙산관 ▲상상관 ▲한성여자중학교에서 실기고사가 진행됐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실기고사는 수험생 외 인원의 교내 출입이 통제됐다. 학부모는 교외 공간에서 대기해야 했다. 대기 도중 창의관 내 이마트24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실기고사 종료 후 정문 일대는 수험생을 기다리는 학부모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ICT디자인학부 실기고사를 응시한 김은서(18) 수험생은 “시험에서 준비한 것을 최대한 발휘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번 입시부터 적용 예정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신입생 모집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마련됐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발표 등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입학시와도 연계해 마련된 조치다. 해당 기준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일괄적으로 신입학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2027학년도에는 전형 유형별로 차등 감점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생활기록부의 학업역량 등을 검토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총점 100점 이내에서 1호부터 7호까지는 최대 40점까지 평가위원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8·9호의 경우엔 불합격 통지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신입생 모집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마련됐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발표 등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입학시와도 연계해 마련된 조치다. 해당 기준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일괄적으로 신입학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2027학년도에는 전형 유형별로 차등 감점될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입학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형별 특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훈(입학전형개발센터) 부팀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수준 등을 고려해 반영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정성평가 : 수치화하기 어려운 속성이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전문가와 함께하는 취업 준비

‘취업탐색 원데이 챌린지(이하 취업캠프)’ 참가자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취업캠프는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운영된다. 참가 학생은 다방면으로 취업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및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정원 충족 시 신청은 조기 마감된다.

취업캠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운영되며 두 유형 중 하나만 수강해도 무방하다. 19일 온라인을 통해 취업준비도 검사와 직무별 취업 전략 특강이 진행되며, 21일 오프라인으로 직무별 실습 및 피드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사·공기업 ▲데이터 ▲마케팅·MD ▲연구·설계 ▲콘텐츠 디자인 ▲패션글로벌소싱 ▲회계·재무·금융 ▲IT개발 등 8개 직무 분야로 구성된다. 대면 프로그램은 탐구관 곳곳에서 직무 분야

별로 ▲직무탐색을 위한 멘토링 및 실습 ▲포트폴리오 작성 및 피드백 ▲유형·직무별 모의 면접 및 피드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는 참가자가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뒤 모의면접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취업캠프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점검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경우 25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 온라인만 이수할 경우에는 10pt, 오프라인만 이수할 경우에는 15pt가 개별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은 데베이크 쿠폰을 받고, 직무별 모의면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는 ‘면접왕’으로 시상된다. 면접왕은 추가로 ‘스타벅스 E-Gift Card’를 증정 받는다.

신자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취업지원팀) 팀원은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 본교와 손잡은 단양강 페스타 성료

본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이하 문콘) 학생과 교수진이 기획에 참여한 ‘2025 단양강 페스타(이하 단양강 페스타)’가 지난 8·9일 양일간 개최됐다. 단양강 페스타는 ‘단양’과 전통 디지털 ‘양강’을 결합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다. 충북 단양군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단양예총에서 주최 및 주관하고 단양군청이 후원했다.

단양강 페스타는 지난해 문콘 추계학술담사 당시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다. 단양군청이 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하면서 기획 과정에 함께하게 됐다. 유재훈(문콘 4) 학생은 “조원들과의 의견 논의 과정에서 가요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제안했는데 해당 아이디어가 실제 축제로 이어져 기쁘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총 35개의 부스와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양강 테마체험존’과 ‘단양강 먹거리

존’에서는 단양의 맛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나만의 양강 레시교 경연대회’, ‘단양강 페스타 솜 켈린지’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성대학교 홍보부스’에서는 문콘 학생들이 제작한 단양강 페스타 홍보 영상이 송출됐다. 한편 본교 버스킹 동아리 ‘4호선마이크’가 ‘단양강 페스타 밴드 음악제’에 참여해 가수 어반자카파의 〈Just A Feeling〉을 포함한 3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김진범(단양군청) 주무관은 “단양강 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성대학교와의 문화교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보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은 졸업 이후 현장에 나가서도 쉽게 할 수 없는 매우 뜻깊은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단양강 페스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이상적인 상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er2536337@gmail.com

# 양산형 인재 찍다 배움 농친 부트캠프

단기 교육 제공하는 부트캠프  
수강생 중도탈락 등 문제 발생  
장기적 관점에서 실무 인재 육성해야

‘네카라쿠배’,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청년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IT 대기업을 일컫는 단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진 오늘날, 그 문턱을 넘어설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코딩 부트캠프(이하 부트캠프)’다. 부트캠프는 IT 개발자로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IT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또한 부트캠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의 질 관리와 수강생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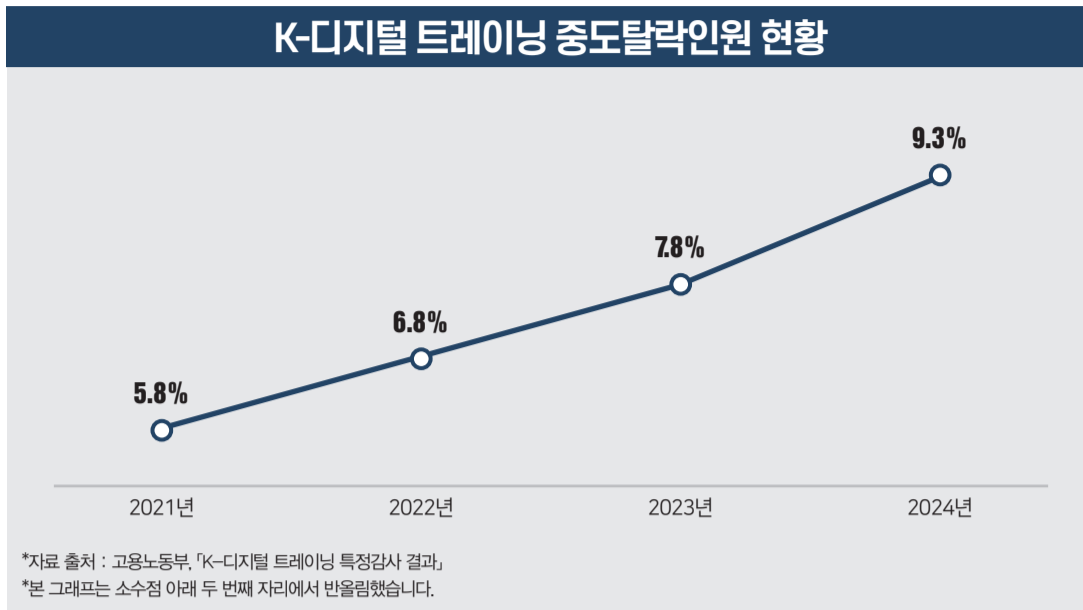
부트캠프는 수강생이 3~6개월간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의 실무 역량을 습득하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산업 현장 진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한다는 목적 하에 부트캠프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진아(에이블런) 대표는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반도체·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정부가 부트캠프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트캠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하 KDT)’ 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근거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를 진행하며,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로 부트캠프를 운영 중이다. 참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비로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전공자도 단기간에 첨단산업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실습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수강생은 짧은 기간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 웹·애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등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기술을 배운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첫 2주 동안 프로그래밍 기초지식을 익히고, 이후 실제 웹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민석(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는 “부트캠프는 지식 습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병행하거나 기본 개념을 익힌 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축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과 기업 및 청년의 요구가 맞물리며 부트캠프에 참가하는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특장감사 결과’에 따르면, KDT 사업의 훈련인원은 2021년 11,727명에서 2024년 37,6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캠프 시장이 확대되자 그 이면에 있던 강사의 전문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중개업



체를 통해 강사를 파견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때문에 개발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 강사가 수업을 맡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부트캠프를 수강한 정대현(29) 씨는 “강사의 수업 내용을 듣다 보면 ‘저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 못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수강생도 강사의 강의력이 형편없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강사의 전문성 부족은 현장 경험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경험 전달 및 멘토링 관점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트캠프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래 취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초기의 취지는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발 역량을 키워 실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미 기본 지식을 갖춘 전공자 위주로 편중되며, 비전공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품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에 따르면, 수강생 전공 분포 중 인문·사회·예체능계가 33.5%에 그쳤다. 반면 이공계는 55%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이(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센터장은 “교육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전공자 위주의 수강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강생의 중도탈락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도탈락은 수강생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고 커리큘럼 도중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강생들이 학습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수업을 그만두는 것이다. 상술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KDT 수강생의 중도탈락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8%, 6.8%, 7.8%, 9.3%를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5개의 부트캠프를 수강한 하민성(35) 씨는 “중도에 포기하는 수강생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트캠프와 시스템 통합(이하 SI) 업계의 연

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 공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수의 부트캠프가 협력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수료생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SI 업계로 연계돼 취업하는 경우 수강생들은 자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는지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진태(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SI 업계에 새로 투입되는 신입 개발자는 구조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한 강사 채용 기준이 강사 전문성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부트캠프가 강의 경력이나 실무 경험보다 정보처리기사,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개발자 등 자격증 보유 여부나 단순 필기·면접 평가만으로 강사를 선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교육 품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주 부위원장은 “자격 검증을 하더라도 해당 검증 통과가 곧 실무 경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이공계 수강생의 낮은 접근성은 커리큘럼의 미비함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부트캠프의 커리큘럼은 표준화된 로드맵 없이 기관별 재량에 따라 구성되는 방식이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전공자가 대학에서 4년에 걸쳐 배우는 내용을 몇 개월의 압축된 커리큘럼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 씨는 “개발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수업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현재 많은 부트캠프가 빠르게 개설되고 개편되다 보니 커리큘럼 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강생의 중도탈락 문제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습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수강생의 이해도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띠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직업훈련 과정과 상담과 진단을 함께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사후 지원 서비스가 부실해 수강생 개인의 수준과 학습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트캠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식 의무가 부재해 수강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 기관이 협력 기업명, 채용 연계 방식, 수료 후 근로 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청년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훈련기관은 준법성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과정 승인 이후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해당 과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 교수는 “수강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사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강사 관리와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대두된다.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한 강사평가제를 도입해 강사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교육이나 교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박 대표는 “전문 강사 확보는 모든 부트캠프의 핵심 과제”라며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강사 풀을 구축하고, 강의 목적이나 수강생 수준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된다. 부트캠프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비전공자도 따라갈 수 있는 단계별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대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커리큘럼 관련 연구를 수행해 표준화된 로드맵과 역량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수강생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해 보충 및 심화학습 등을 통한 훈련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김 센터장은 “재교육 등을 포함한 사후 지원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트캠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취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트캠프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강생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 마련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소연(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는 “정부는 근시안적인 인재 양성에 벗어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아닌 실질적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 입기자의 외교 노트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두 정상인 한국에서 마주했다. 지난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이 그 현장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수출 통제 완화’, ‘반도체 수출 제한 유예’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잠시 묻어둔 채, 자국의 이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 속에서 제한적 협력 체계를 선택했다.

먼저 교역의 고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출 통제 완화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양국의 교역은 패권을 다투기 위한 보복관세 무역 갈등으로 위축돼 있었다. 고율 관세와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교역 구조 전반이 불안정해지자 미중은 상호 보복 관세 일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일부 농산물에 부과하던 최대 125%의 관세를 115% 수준으로 낮추고, 중국 역시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매기던 최대 15%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주재우(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의 단계”라며 “실제로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히토류 공급망의 숨통을 트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양국의 농산물 공급망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한다. 2000년대 초반 미국산 농

## 미중 세기의 담판, 외교의 판도를 흔들다

산물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의 교역량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이후 급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농가 피해와 중국 가족의 식량 공급 불안을 초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농가와 곡물 산업의 수출 기반을 회복하고, 중국은 대두·옥수수 등 주요 식량 공급망을 확보해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농산물을 시작으로 각국이 부분적으로 교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최진백(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농산물 수입 재개는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휴전의 성격이 강하다”며 “1년 동안의 약속이기에 신뢰 회복으로 보는 건 선부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도체 수출 제한 유예에 관한 합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전기차,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히토류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1년간 유예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의 수입 규제를, 중국은 자국 내 히토류 및 반도체 수출 제한을 연기했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부문에 기존 50%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했었으나 이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급망 안정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주 교수는 “이번 반도체 수출 제한 유예 조치는 양국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상호 의존

적인 산업 구조를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도체 수출 제한 유예는 양국 간 기술 경쟁에 따른 충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배터리·반도체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국은 산업 회복 역량을 확대하며 기술 의존도 완화를 꾀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가 감소되면서 양국의 기술 경쟁이 협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석오(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양국 모두 이번 회담에서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1년 동안의 유예 조치를 통해 패권 경쟁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이 한국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핵연료 기술을 한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이전 승인’ 문제가 대두된다. 최근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군사력 확장에 속도를 냈다. 이를 두고 미국은 회담 직전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이전을 승인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미중 무역·기술 전쟁 속에서도 한국이 에너지 안보 및 첨단 원자력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박동준(세종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이전을 승인한 것은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교역 환경 부담이 완화됐으나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완화되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기술·안보 갈등은 여전히 근본적인 안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주 교수는 “이번 회담이 산업 환경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산업 규제가 유지되는 한 선부른 낙관은 어렵다”며 “한국 기업은 제3국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회담도 첨단 산업 분야의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기반이 안정되며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첨단소재와 기술 분야에서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청년이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며 “2025 APEC 정상선언문 경주 선언에서 강조된 청년 역량 강화와 미래 주도적 참여 기회 제공 목표와도 맞물린다”고 밝혔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노란봉투법, 상생의 법을 꿈꾸다



사회의 변영 뒤에는 이름 없는 노동이 있다. 그 이면에서 기업이 형성한 노동 구조는 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사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고자 10년이 넘도록 논의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고 사회적 논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지, 노란봉투법이 논란을 딛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노란봉투법은 보장하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정의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및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상 해당 법률로 노사 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잡한 노사 간 계약 관계는 '하도급(下都給) 구조'의 형성에서 비롯됐다. 하도급 구조는 원청이 맡은 업무를 하청에 다시 맡기는 방식이다. 기업이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규제 등 고용 기준이 강제되지 않거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하도급 구조와 하청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16.3%가 하청 노동자 등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6명 중 1명은 하청 업체 인력이라는 의미다.

업무의 외주화는 자연스럽게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로 이어졌다. 하도급 구조로 인해 근로조건 차이가 구조적으로 굳어진 형태다. 하청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원청 아래에서 일하지만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지지 않으며 간극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커지는 것 역시 동일한 이유다.

원청이 고용의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 공사 기한을 앞당기거나 생산량을 늘리려는 원청의 압박 속에서 하청은 무리한 작업과 인력 축소를 강요받고, 그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날 공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47.7%에 달해 202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이지만, 하청 노동자는 계약상의 상대가 하청이다. 하청 역시 원청의 지시와 압박 속에서 자율적인 노동환경 개선 여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법 제2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그 임직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는 구조에 놓였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 제한'의 범위

가 폭넓게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 개인에게 『민법』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청구가 부여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를 촉발시킨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이 일례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가 파업하자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다. 이정희(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노동자의 가정파괴와 자살 등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해 파업의 정당성 범위가 넓어지도록 했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제한해 노동자가 기업의 거액 배상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기업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으며, 여러 노조 중 대표 한 명을 선출해 원청과 교섭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경우 원청은 모든 근로조건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노조가 일부의 단체교섭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서로 다른 단체교섭권의 범위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기업은 원청 산하의 모든 노조와 각기 만나 교섭을 진행하며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학주(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노무사는 "하청 노조는 업체별로 단체교섭권의 범위가 달라 현행 교섭 단일화 절차로는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별 개별 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교섭 요구가 빈번하지 않아 기업 측 피해는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또한 제기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의 하청이 노조가 구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노조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청이 속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로 드러났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부분의 하청 업체는 상황이 열악해 노조가 대기업처럼 강하게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이 드물다"고 전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며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도 노조가 개입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에 대한 타격이 크다는 의견이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인력 운용 같은 민감한 경영사 결정이 쟁의행위로 지연될 경우,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시장 대응이나 투자·사업 전략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찬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단순한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이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쟁의대상 확대 조항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제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는 반박도 제시된다. 해당 조항은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쟁의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다. 정영훈(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지금까지는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간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조항이 노조의 불법파업 또는 부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억제 수단을 약화시켜 기업이 피해를 방어할 수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40.6%가 '국내 기업의 축소·철수·폐지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박영범(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노조의 파업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져 노조 활동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노동자가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된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나며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2년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 약 470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이후 전적 취하한 바 있다. 이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는 만큼 논의를 통한 제도 보완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신설·수정이 이뤄진 조항들의 진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해 위헌 시비가 예상되는 등 개정으로 추가된 조항 중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며 "관련해서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사가 서로를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명예교수는 "기업은 노조를 협력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조 역시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처벌과 통제가 아닌 자제적인 규율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발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지금의 법 기조는 처벌 위주로 이뤄져 있어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노사 갈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규율에서 벗어나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규민(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직된 노동 규제를 풀어주고, 다양한 계약 형태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 사용자 정의 확대

- 노동계**  
하청업체 중 노동조합은 소수이기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
- 경영계**  
하청 노동자의 수 많은 요구로 인해 기업의 부담 범위가 확대

## 쟁의대상 확대

- 노동계**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쟁의대상을 확대한 것일 뿐 과도한 우려는 입장
- 경영계**  
경영상의 판단에도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에 대한 타격이 크다는 우려

## 손해배상 제한

- 노동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던 노동자가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
- 경영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간 불균형이 생긴다는 비판

## 노조법 제2조 개정사항

사용자의 범위 확대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비전형노동자 단결권 보장 (제2조 제4호 라목삭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확대 (제2조 제5호)

## 노조법 제3조 개정사항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제3조 제1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방위 목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제한 (제3조 제2항)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책임의 개별화 (제3조 제3항)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감면청구권 인정 (제3조 제4항)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제3조 제5항)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제3조 제6항)

사용자의 면책 권한 부여

# 부조리한 사회의 얼굴을 드러내다, PD 조성현

“다큐멘터리 최초 넷플릭스 국내 시청 1위.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성과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 은밀히 뿌리내린 사이버 종교의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를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사이버 종교에 잠입해 피해 실태를 드러내며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기도 했다.

조성현(46) PD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며 방송을 통해 사회 속 진실과 인간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불만제로>, <PD수첩> 등 수많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불합리한 현실을 드러냈다. 방송 이후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깃든 진실과 사회의 단면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투영된 것이다.

‘세상에 질문을 던져라’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지만, 정작 우리는 왜 세상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변화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조 PD가 발로 뛰며 마주한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자.

### 물음표 살인마, 변화를 추구하다

조 PD는 어릴 적부터 ‘바른 말을 잘하는 아이’로 불렸다. 친구들 선생님이나 논리적이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고, 때로는 반박을 멈추지 않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 폭탄’을 던지는 아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 여기저기에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사회성이 부족했던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의 말만 듣고 그대로 따르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질문을 하다 보니 관심을 두는 분야도 많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세상을 향한 그의 호기심과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막연히 영화 감독을 꿈꾸며 언론정보문화학부에 입학했지만, 정작 그의 시선은 세상의 여러 결로 향했다. 흥미가 생기면 직접 부딪쳐보는 성격이었기에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런저런 경험과 시도를 했어요. 우디 앨런이라는 영화감독을 좋아해서 저도 그 사람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유학을 준비했어요. 우디 앨런처럼 형식을 벗어난 자유로운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영화 말고도 제가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었어요.”

세상을 탐구하던 그는 우연처럼 PD의 길에 들어섰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겸해 PD시험을 봤고 불과 1년 만에 MBC에 합격했다. 입사 후 그는 <불만제로>, <MBC 스페셜>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참여하며 방송 현장을 몸소 익혔다. 그는 언젠가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품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갔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사회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위로하는 조PD

▲가해자 유가족을 취재하기 위해 기다린다.

▲조PD가 사이버 종교 피해자와 식사한다.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며 경험을 쌓던 그는 자신의 시각을 한층 깊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만났다. 바로 <PD수첩>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추적하는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그는 방송 제작에 참여하며 수레 한가득 자료를 모으고 방대한 내용을 익히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남들이라면 버거워할 과정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안에서 매력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그가 해왔던, 세상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PD수첩>을 촬영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사유할 수 있었어요. 메인 PD였던 최승호 선배님에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웠어요.

반박이 오가더라도 다시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미를 느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에요. 아름답던 낙동강이 개발 사업으로 파괴되는 과정을 기록하며 그 피해가 개인과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방송에 담고자 했죠.”

PD로서 정식 입봉한 뒤 그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질문이 누군가의 아픔을 비추고, 그것이 더 이상 ‘남의 일’로 외면되지 않길 바랐다. 그 마음을 담아 조명한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에 있던 부랑인을 복지원으로 납치·감금·폭행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낸 사건이다. 영상이 공개된 2013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지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방송과 사회가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싶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형제복지원 사건이네요. 복지의 이름 아래 폭력이 자행되고 수많은 이들이 부당한 감금과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죠. 사건의 피해자가 도사 ‘살아남은 아이’를 집필해 세상에 알리려 했으나 방송 제작 전에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문제였어요. 방송을 통해 외면받은 현실을 비추고, 우리 사회가 소수의 일을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길 바랐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취재하면서 조 PD는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다. 그중에서도 그

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고통이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함께 상상하고, 그 장면을 눈앞에 그리며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피해자의 증언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사건을 취재하면서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은 남매였는데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졌어요. 누나와 함께 납치된 거죠. 그곳에서 그는 매일 폭행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해요. 어느 날 누나가 찾아와 함께 도망가자고 했지만 실패한 후 가해질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누나의 손을 잡지 못했다고 해요. ‘그때 누나 손을 잡아 줘달라’고 말하며 여전히 그 일을 한으로 품고 우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방송을 마무리 짓겠다는 다짐으로 촬영에 임했어요. 출연자들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들의 증언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그는 개인의 삶에 깊이 스며든 사회 문제를 더욱 예리하게 짚어내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나는 신이다>이다. 이 작품은 일상에 은밀히 퍼져 있는 사이버 종교의 사기행각과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한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믿었고 그 연결고리를 깊이 있게 드러내며 사회가 다시금 인간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나는 신이다>는 공개 직후 인기를 끌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이비 종교는 대학생도 많이 마주치는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시절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노려지기도 하는 등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있죠. <나는 신이다>는 단순히 사이버 종교의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로 노동이나 성 착취 등이죠. 사이버 문제는 특정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회와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는 순환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사회적인 이야기’라고 믿으며 방송을 제작했어요.”

조 PD는 프로그램의 흥행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 사회 구조 및 제도로 인해 피해를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했는지 들여다보고자 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느꼈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제가 약 12년 전에 촬영할 때 봤던 분이네요. 오래전 일인데도 그분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부실 공사 건물이 신재하잖아요. 반복되는 문제들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있죠.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삶을 살펴보고 사회에 마련돼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조 PD는 이후에도 개인과 사회문제를 조명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그의 시선을 통해 사회가 외면한 개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감의 가치를 되새기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PD라는 직업은 관심 있는 걸 영상으로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관심사가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직업이라고 여기죠. 저는 사이버 종교를 비롯해 인공지능, 권력 앞에 놓인 개인 등의 주제도 다뤄보고 싶어요. 개인의 일상에 파고들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 삶에 물음표를 던지다

조 PD는 사람의 이야기가 곧 사회의 이야기임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다.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사회적인 구조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으로 사회가 형성되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모으면 세상이 보인다고 말한다.

“우리가 겪는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결국 인간 개개인의 삶을 가장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사회와 관련된 일이지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화면을 끄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해되도록 노력해요. 제 작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록들을 볼수록 쌓아 올려 하나의 사회문제가 보이도록 구현했죠.”

조 PD는 사회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사회의 변화는 결국 ‘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질문하라고 조언한다.

“요즘은 ‘왜요?’라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학업에 쫓기다 보니, 질문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에는 ‘답안하지 않은 일’이 정말 많아요.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이죠. 사소한 불편함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우리 곁에 있어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일,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사진: 조수윤 기자

▲조성현 PD

# 미래를 향한 두 번째 여정 : 사용후핵연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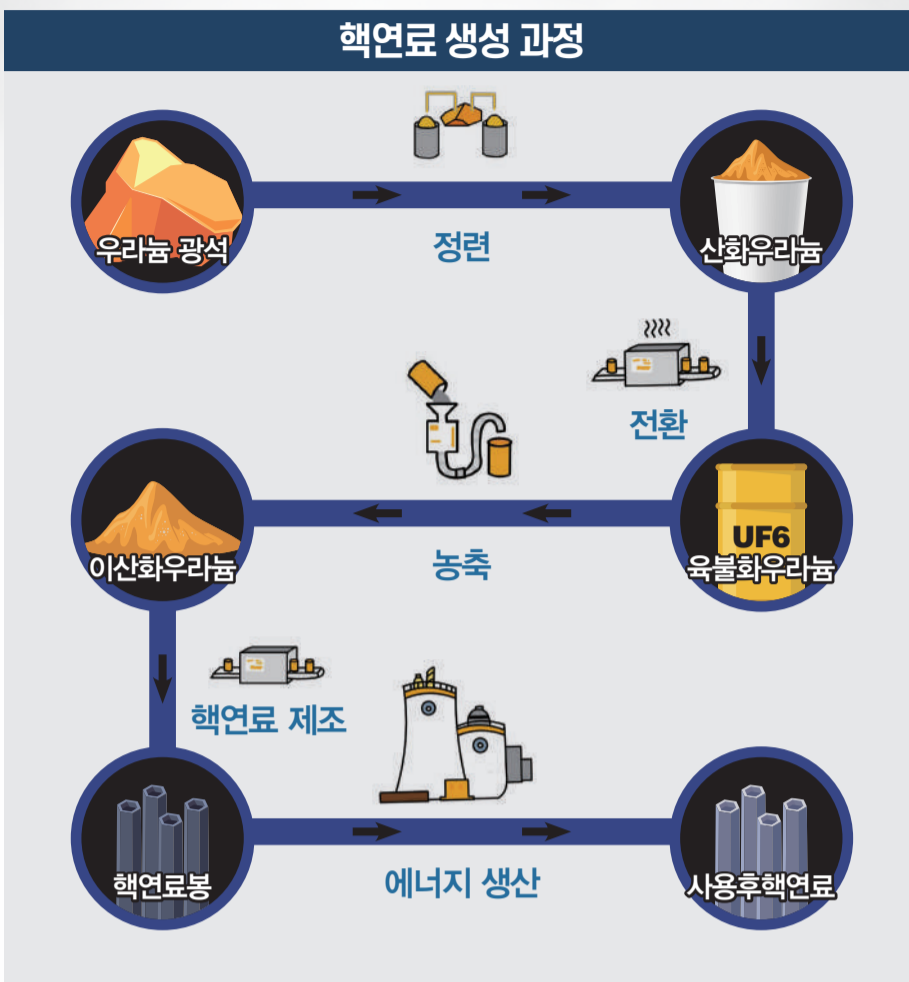
핵폐기물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되살아났다.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더 이상 발전에 활용하기 어려운 핵연료를 말한다. 폐기물로 보관할 필요 없이 연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핵연료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후핵연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재처리될까.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핵분열'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핵분열이란 원자의 중심인 원자핵이 쪼개지는 현상이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사이의 균형이 깨질 경우 분열한다. 핵이 외부 중성자를 흡수하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져 두 개의 가벼운 핵으로 갈라지는 형태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와 함께 여러 개의 내부 중성자가 함께 방출된다. 허진목(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은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두 개의 더 작은 원자핵으로 분열되면서 다수의 중성자와 함께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핵분열을 직접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은 자연계에 단 하나뿐이다. 바로 '우라늄-235'다. 우라늄-235는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는 원자의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이 다른 원소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동위원소는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중성자가 우라늄-235의 원자핵에 충돌하면 원자핵이 일시적으로 커진다. 이후 곧 두 개의 중간 크기 원자핵으로 분열하며 막대한 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중성자를 방출한다. 박해균(경북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우라늄-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면 순간적으로 우라늄-236의 형태로 변해 불안정해진다"며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쪼개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연료, 본질을 찾아가다

우라늄-235를 활용하면 '핵연료'를 만들 수 있다.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로, ▲정련(精鍊) ▲전환 ▲재전환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 형태로 가공된다. 이러한 공정은 자연에 있는 혼합물 내 순수한 우라늄-235를 추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먼저 정련 단계에서는 우라늄 광석을 잘게 파쇄한 뒤 황산이나 강알칼리 용액을 사용해 우라늄 원소를 추출한다. 이때 우라늄 원소는 용액 속의 산이나 염기와 반응하면서 전자를 일부 잃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형태로 변환된다. 이렇게 용해된 우라늄은 '우라닐 이온(UO<sub>2</sub><sup>+</sup>)' 형태로 수용액 속에 녹아 나오고 반응 후 남은 찌꺼기는 분리·여과 과정을 통해 제거된다.



이렇게 얻은 우라닐 이온은 우라늄 원소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상태다. 이온화된 상태에서는 우라늄이 수용액 내에서 다른 불순물과 화학적으로 구분되기 쉬워 정제가 수월해진다. 정제된 용액에 침전제\*를 투입하면 우라닐이 침전돼 액상에서 분리된다. 생성된 침전물을 건조한 뒤 고온에서 가열하면 가루 형태의 '산화우라늄'으로 전환돼 후속 가공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산화우라늄은 도자기처럼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산화우라늄은 '육불화우라늄(UF<sub>6</sub>)'으로 만들어지는 전환 과정을 거친다. 육불화우라늄은 우라늄과 불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실온에서는 고체이나 약 57°C 이상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기체 상태가 되면 순수한 우라늄-235를 뽑아낼 수 있다.

전환 과정을 통해 얻은 육불화우라늄은 가열해 기체로 만든 뒤 원심분리기에 넣는다. 원심분리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해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질량 차이가 있는 원소들을 구분한다. 이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는 냉각 및 화학 처리를 거쳐 고체 형태의 '이산화우라늄(UO<sub>2</sub>)' 분말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을 재전환이라 부른다. 박 교수는 "원심분리를 통해 우라늄-235를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때 기체상태가 분리되기 용이하기에 육불화우라늄을 기체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과정을 통해 얻은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성형해 작은 조각으로 만든 뒤 이를 금속 피복관에 넣어 연료봉과 연료집합체를 제작하면 핵연료가 준비된다. 이 과정에서 원자로 안의 우라늄-235가 핵분열을 일으키며 열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한 열로 냉각수를 끓여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Turbine)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

## 분열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다

원자로에서 연료를 3-5년간 사용하면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축적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므로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제거된 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잔열을 줄이기 위해 수조에 넣어 일정 기간 수중 보관하며, 약 10년이 지나면 재처리 단계로 이행된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핵물질들을 회수해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이 필요하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전기를 활용하는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전해환원 단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인 이산화우라늄에서 산소를 제거해 금속 우라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통형 이산화우라늄을 분말 형태로 만든 뒤 고온의 소금물과 유사한 용융염\*\*에 투입한다. 이때 전류는 전자를 이동시키며 금속과 산소 이온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류가 흐르면 음극(-)에서 이산화우라늄이 전자를 받아 산소가 제거되고 금속 우라늄이 생성된다. 반면 양극(+)에서는 산소 이온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 산소 기체로 방출된다. 즉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이 전기화학적 분리를 통해 우라늄을 금속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전해정련은 앞선 전해환원 단계에서 얻은 금속 우라늄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금속 우라늄을 양극 막대에 연결시켜 전류를 흘려주면 양극의 우라늄이 전자를 잃고 용융염 속으로 녹아들어간다. 이렇게 변환된 물질이 '염화우라늄(UCI)'이다. 용융염에 용해된 우라늄 이온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음극으로 이동

하고 그곳에서 전자를 다시 받아 순수한 금속 우라늄으로 환원된다. 즉 양극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금속 우라늄이 이온화돼 용해되고 음극에서는 순수한 우라늄이 다시 금속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등 다른 원소들은 전기적 에너지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위치에서 분리돼 선택적으로 회수된다. 허 책임연구원은 "전해정련은 전류를 이용해 금속 우라늄을 이온화해 녹여내고 다시 순수한 금속 형태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정련을 마치면 전해제련 단계가 이어진다. 전해제련에서는 전해정련으로 분리되지 않은 금속성 혼합물을 회수한다. 전극과 용융염의 전기화학적 조건을 조절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금속들을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하고 핵분열 생성물과 일부 불순물은 용융염에 남겨둔다. 이후 회수된 금속을 녹여 주조·성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전기화학적 처리와 열처리가 병행된다. 남은 용융염과 잔류물은 별도로 관리해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로 남는다.

회수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은 소듐냉각 고속로\*\*\*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에서는 빠른 중성자를 이용해 회수한 플루토늄을 바로 쪼개어 열을 만들고 우라늄-238은 중성자를 받아 플루토늄으로 바뀌게 한다. 이렇게 생긴 열은 액체 나트륨이 옮겨 증기로 바뀌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 내일의 동력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핵연료를 사용한 뒤 폐기해야 했기 때문에 저장 부지 부족 문제가 심각했지만, 최근에는 자체 재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핵연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에너지 개발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 책임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은 자원 이용 효율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면적 저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영구 처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엄우영(POSTECH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다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지만, 재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처리와 더불어 영구 처분장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전제 : 용액 가운데 어떤 특정 물질을 침전시키기 위해 쓰는 시약

\*\*용융염 : 고체 상태의 소금을 가열해 녹여 액체로 만든 것

\*\*\*소듐냉각고속로 : 액체로 용해된 상태의 금속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고준위 : 원자, 분자, 원자핵 등이 정상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값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

조수윤 기자 wateryun77@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방향 잃은 교육, 제 궤도에 안착하려면

취업난, 인력난, 경제난. 수많은 난관 속에서 본교가 그 해답을 내놓겠다는 듯 야심찬 교육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름하여 '창업트랙'이다. 융합 교육을 표방하던 본교가 이번 학기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자기설계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융합 트랙을 더했다. 취업률 경쟁과 실무 교육에 발맞추려는 대학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혼란도 엿보인다.

한때 '창업 열풍'이 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식·기술·아이디어와 같은 자원을 결합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창업교육은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과정보다,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습의 장으로 자리해왔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창업 관련 특강이 열리고 교양 교과목에 창업과정을 다루는 수업이 개설되는 등의 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본교의 창업트랙은 인공지능에 잡식당한 듯 보인다.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양을 쌓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보다 AI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데에 치중돼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살펴본 '한성대학교 창업트랙 소개 및 교과구성(안)' 내 '모든' 교과구성에는 AI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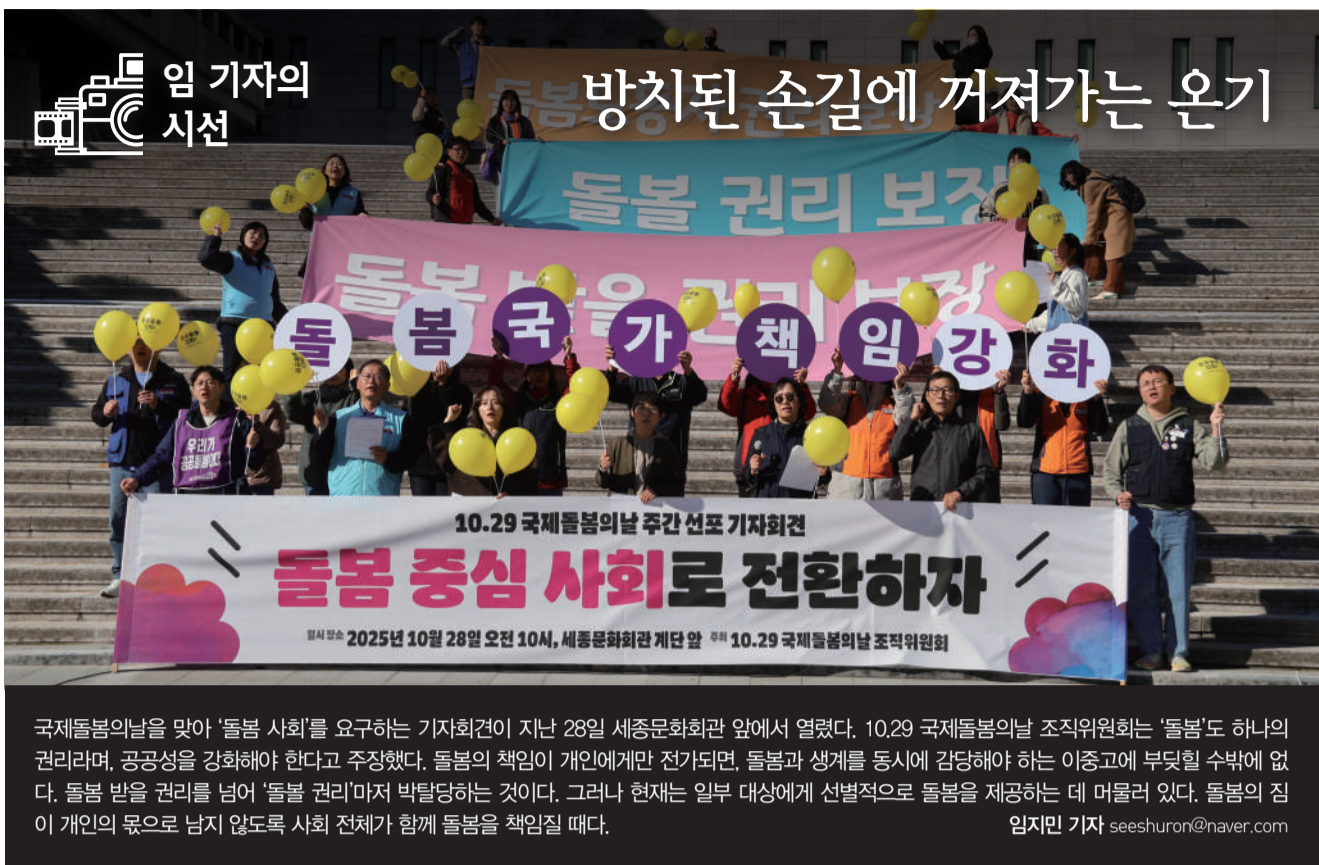
창업을 교육과정 내로 끌어들이며 '상

품화된 교육'에 그칠까 팬스레 걱정이 앞서기까지 한다. '업(業)'이란 말 그대로 결과를 내야 하는 활동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다르다. 교육은 사유를 넓히는 과정이지만, 창업은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회를 잃는 감각을 기르려면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양이 먼저 자리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놓여있는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AI와 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맥락과 윤리적 책임을 함께 탐구하는 수업 구조가 필요하다. AI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창업'으로 나아가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깊이 돌아볼 수 있을 테다.

본교는 그간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발굴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진정한 융합이란 서로 다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그 안에서 사유의 깊이를 넓히는 일이다. 취업시장에 내보낼 인재를 빠르게 길러내는 것이 융합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 사회에 신속히 인력을 배출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제 빠르게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숲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길 위에서, 본교가 숲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진정으로 염원한다.

이승희 편집국장



국제돌봄의날을 맞아 '돌봄 사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돌봄'도 하나의 권리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전가되면,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돌봄 받을 권리를 넘어 '돌봄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데 머물러 있다. 돌봄의 짐이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돌봄을 책임질 때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기자수첩

### 관람의 발걸음이 내일에 닿도록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중박)의 인기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해만 벌써 500만 명이 넘는 관람객 수를 기록할 정도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관람객 수였던 295만 명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 수를 동원했다. 필자도 국중박 현장 취재에 동행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국중박은 기존에 인식하던 '박물관'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유물을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 생동감 있게 전시를 느낄 수 있었다. 박물관 내부에 턱을 얹어 통행에 불편함을 없애는 등 누구나 편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인상 깊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국중박 입장료 유료화가 대두되고 있다.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는 우리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전시를 관람

하는 것은 낯설 테다. 하지만 박물관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중박의 '2025년도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올해 국중박 운영을 위한 세출은 829억 원이었던 반면, 세입은 23억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간송 전형필 선생의 유물이 경매에 출품됐으나 국중박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응찰하지 못했다.

혹자는 국중박의 흥행 원인 중 하나인 박물관 상품, '뫼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익은 국중박과 무관하다. 국중박의 별도 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운영·관리하는 탓이다. 유료화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해외에서는 박물관 입장료 부과와 더불어 다방면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정부의 재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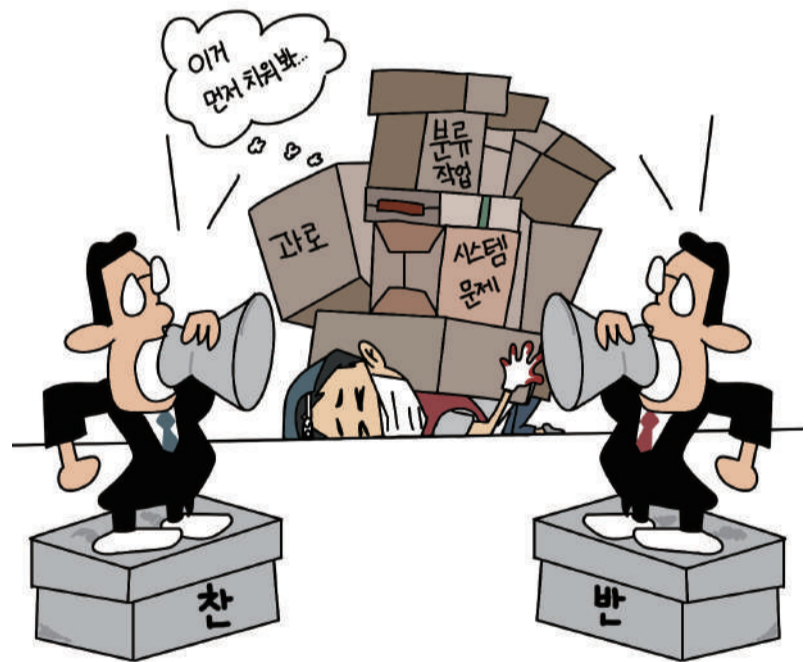
지원 외에도 성인 기준 약 22유로(한화 약 3만 6천 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다. 그럼에도 2024년 한 해에만 87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국중박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명목 하에 전시를 2008년부터 무료로 전환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유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유물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미래 세대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입장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바로 그 의무의 실천이자, 후대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투자로 작용할 수 있을 테다. 그렇다면 필자부터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김연우 기자 er2536337@gmail.com

### 낙산만평

김혜윤 기자 purple.peal06@gmail.com



### 낙산에 올라 언어의 국경 : 국경을 넘지 못하는 이주민의 언어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언어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주로 국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주는 언어의 장벽을 만들곤 한다. 즉, 사람은 국경을 넘어도 언어는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언어는 사람이 사회에 포함되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글로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언어의 장벽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 숙달이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일상생활 적응, 고용 접근, 불안 해소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여러 이유로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어의 장벽이 생긴 이주민의

삶은 어떨까? 한 기사에 따르면 7년 전 한국에 온 베트남 이주민 풍티투(37)는 병원의 기억을 묻자 '말에 얽힌 한'부터 이야기했다. "아파도 병원 안 갔어요. 그냥 약국 갔어요. 말 못 해서." 또한 그녀는 한국어로 가득한 '초음파검사 결과지'나 '기형아검사 결과지'를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병원 앞에서 풍티투에게 언어는 소통의 도구 아니었다. 벽이고 공포였다. 언어의 장벽은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언어를 학습해 언어 장벽을 넘을 기회가 부족했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한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를 학습시키려면 이민자의 심리적 저항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

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에게 접근할 전략도 필요하다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언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실생활 언어를 학습할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더 많은 이주민들이 같은 소리와 강도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황수현(인문 2)

### 의화정 K-Food, '먹는 음식'에서 '보는 콘텐츠'로

한식은 이제 '먹는 음식'을 넘어 '보는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을 열면 떡볶이가 매콤하게 익어가고 라면 위에는 치즈가 사르르 녹는다.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 속에서 한국의 맛이 세계인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최근 K-Food 숏폼 콘텐츠를 살펴보면 느낀 것은 한식이 꼭 전통 음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식은 완벽함보다 친근함으로 사랑받고 있다. 누군가는 편의점 신상품을 감각적으로 소개하고, 누군가는 라면을 예술처럼 끓인다. 화려하게 차려진 한 상보다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짧은 영상 한 편이 더 큰 공감을 얻는다. 인상적인 점은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한식을 재해석하

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한식을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보는 놀이'로 즐긴다. 국수를 김치로 돌돌 말은 김치말이국수를 만들거나 고추장과 버터를 섞은 고추장버터를 만들어 K-소스를 즐긴다.

오뚜기 합태호 재단과 함께, 해외에서 K-Food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또 소비자들 이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숏폼 속 K-Food는 단순히 먹고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과 감각으로 새롭게 변주되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 소비자 경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닌 해외 소비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K-Food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맛

의 경험 넘어 직접 따라 해보려는 참여형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영상의 형식이 '어떤 한식을 경험하게 하는가'를 바꾼다는 것이다. 먹방은 화면 속에서만 끝났지만 조리 영상은 손을 움직이게 만들어 실제로 김치볶음밥을 따라 하게 했고 리뷰 영상은 편의점 신제품을 사보게 했다. 그리고 여행 콘텐츠는 한식당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결국 K-Food 콘텐츠의 매력은 맛 그 자체보다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이야기 방식에 있었다.

이제 한식은 완성된 맛이 아니라 짧은 영상 속에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다소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각자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K-Food 콘텐츠다.

김보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이 살아있다!

(편집자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중박)의 시대가 왔다. 신성하게만 느껴지던 문화유산이 이제 우리 앞에서 살아 움직인다. 국중박에서 반가사유상을 보며 잠시 멈춰 사유하거나 VR로 삼층석탑 근처를 걸어보며 '뭇즈'를 사는 등 체험이 소비까지 이어진다. 개인이 만든 소반, 자개 스티커로 꾸민 텀블러 하나하나가 전통을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재미가 된다. 전통문화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살아 있는 가치가 된다. 진열장 속 문화유산이 '합'해진 지금,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중박에 대해 파헤쳐 보자.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국중박, 청년을 사로잡다

최근 국중박이 청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정연욱(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중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중박 누적 방문객 수는 5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5위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가 방문한 평일에도 개관 시간 이전부터 박물관 앞은 관람객으로 빼곡했다. 팽택대학교 광고홍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우시은 학생은 "국중박 줄이 너무 길어서 대부분 개관 몇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 있다"고 전했다.

국중박이 이토록 인기를 끌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국중박은 단순한 학습의 공간을 넘어 몸소 체험하며 역사와 예술을 직접 느끼는 장으로 탈바꿈했다. 전시관을 채우는 빛과 음향, 공간의 구조는 문화유산에 '스토리'를 더하며 관람객에게 시대를 넘나드는 생생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종욱(한국전통문화대학교원 디지털 헤리티지학과) 교수는 "국중박의 전시 공간은 관람객의 오감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며 문화유산과 현재를 연결하는 예술적인 체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중심으로 '힙트래디션(hip-tradition)'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힙트래디션은 감각적임을 뜻하는 힙(hip)과 전통을 뜻하는 트래디션(tradition)이 합쳐진 단어로, 전통을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해 즐기는 문화 태도를 뜻한다. 과거의 문화유산을 그저 보존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조형미나 색깔,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흐름이다. 청년은 전통을 먼 옛날이야기로 보지 않고 멋진 디자인과 시대를 넘어서는 아름다움으로 생각한다. 최소영(문화역사학284) 국가유산해설사는 "전통이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물지 않고 현대 문화의 일부로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조의 '화성낙성연' 실감 콘텐츠



▲기자가 도자기 유물 해설을 시청하고 있다.

## 전신으로 전시에 몰입하다

국중박의 전시는 단순 관람을 넘어 몰입형 전시 형태로 나아갔다. 몰입형 전시는 빛·소리·영상·향기·움직임 등을 활용해 관람객의 모든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작품 세계에 깊이 몰입하도록 구성된 전시 형식이다. 이러한 전시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감상 공간으로 구성한다. 전시장벽에 큰 화면을 투사하고 음악과 조명을 장면의 전환에 맞춰 조정한다. 음악이 느려지면 조명이 어두워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밝아지며 전체 분위기를 통일감 있게 만든다.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개관 후 4년째 국중박에서 가장 인기있는 전시실인 사유의 방에서 관람객은 몰입의 경험을 체험한다. 넓은 원형 공간의 한가운데, 단 두 점의 반가사유상이 놓여있다. 어둡한 조명이 드리운 공간 한가운데 두 줄기의 빛이 반가사유상을 비춘다. 그 빛 아래 관람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오직 시각에만 집중해 다른 감각의 자극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람객은 외부 환경보다 작품과 자신의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각자의 고유한 사유와 마주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 교수는 "사유의 방은 관람객이 공간 자체와 문화유산을 함께 느끼도록 설계된 단순 관람을 넘어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국중박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관람객의 눈과 귀를 통해 평면적인 회화 속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관람객은 시청각적인 자극을 받고 마치 조선시대 궁궐 한복판에서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역사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초대형 미디어 스크린은 사방과 바닥까지 5면을 가득 채우며, 회화가 살아 움직이고 음향이 공간을 완전히 감싸 관객을 둘러싼다. 안양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황채원 학생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서는 그림 속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리와 색이 맞물려 전통 작품을 온전히 향유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 Hip-Tradition



▲'사유의 방'에 반가사유상 2점이 전시돼 있다.



▲'나만의 황금유물 만들기'를 체험한다.



▲뭇즈에서 판매 중인 자개모양 홀로그램 스티커

## 체험은 시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관람객은 국중박의 체험형 전시를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과 미감을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형 전시란 관람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전시 주제와 내용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도록 설계된 전시 형태다. 덕분에 청년은 옛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안의 의미를 살려 새롭게 풀어낸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전통문화의 맥락과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청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즐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년은 전시에 직접 참여하며 우리의 고유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국중박에서 관람객은 '나만의 황금 문화유산 만들기'를 통해 금제 장신구를 관람한 뒤 디지털 화면에서 스크린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청년은 문화유산을 재현하거나 디지털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미감을 스스로 탐색한다. 김 교수는 "청년은 역사 속 흔적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통의 아름다움을 해석한다"고 전했다.

VR 체험관에서는 가상사지 삼층석탑과 같은 건축물을 360도로 둘러보며 가상 공간 속에서 시대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대면 환경과 새로운 기술 적용에 익숙한 청년 세대 특성상 VR은 이미 일상 속 놀이이자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VR 게임이나 영상 등이 그 예다. 이 때문에 VR 체험관을 통해 만나는 전통 건축물 등은 청년에게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온다. 마치 직접 방문한 것처럼 몰입하며 건축의 디테일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전시관 곳곳에는 관람 후 직접 만져

## 뭇즈, 오늘의 취향이 되다

전통을 체험하던 청년의 관심은 이제 소비까지 이어진다. 국중박 내 상품관에 자리한 '뭇즈(MU:DS)'가 그 대표 사례다. 뭇즈는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의 합성어로 전시나 문화유산의 생김새를 활용해 제작된 박물관 상품이다. 실제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뭇즈의 올해 매출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제 단순히 문화유산에 몰입하고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단청 무늬 스카프, 조선 궁중 랩프, 반가사유상을 모티프로 한 미니 피규어까지 판매하고 있다. 청년은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감각의 뭇즈를 소비한다. 김 교수는 "뭇즈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개체로 작용해 청년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했다.

전통을 체험하던 청년의 관심은 이제 소비까지 이어진다. 국중박 내 상품관에 자리한 '뭇즈(MU:DS)'가 그 대표 사례다. 뭇즈는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의 합성어로 전시나 문화유산의 생김새를 활용해 제작된 박물관 상품이다. 실제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뭇즈의 올해 매출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제 단순히 문화유산에 몰입하고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단청 무늬 스카프, 조선 궁중 랩프, 반가사유상을 모티프로 한 미니 피규어까지 판매하고 있다. 청년은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감각의 뭇즈를 소비한다. 김 교수는 "뭇즈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개체로 작용해 청년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가 과거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청년의 '리메이크' 성향과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청년은 이제 전통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재현하며 창조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확장한다. 실제로 전통문화를 담은 굿즈를 직접 제작하거나 이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감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일상에서 쉽게 발견된다. 더불어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을 현대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결합해 되살리는 이러한 시도는 일상 속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생활 속 소품에 옛 문화를 녹여내는 과정

에서 청년은 전통을 손으로 만지고 바꾸며 그 안의 의미를 확장한다. 전통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조상명(셀랑 코리아) 대표는 "직접 만들어보니 전통이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기보다는 왜 예전 사람들이 이런 문양과 매듭을 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리메이크를 통한 재창작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소비자에게 전통을 친근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변화는 리메이크된 문화유산인 뭇즈가 청년의 일상과 취향 속으로 스며든다는 걸 보여준다. 청년은 뭇즈에서 구매한 자개 스티커와 같은 전통 굿즈로 일상의 물건을 꾸미며 자신만의 색을 입힌다. 텀블러에 자개 스티커를 붙이거나 '나전소반 만들기' 체험 세트를 이용해 작은 소반을 제작한다. 전통 나전소반을 현대의 찻잔 받침대나 악세서리 보관대로 사용하는 등 전통의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취향과 스타일을 더한다. 김 교수는 "청년들의 재해석은 전통 문화를 재현하고 변형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말했다.

오늘의 국중박은 청년이 전통을 소비하며 세상에 다시 전파하는 주체가 되도록 이끈다. 자신이 만든 소반, 꾸민 텀블러, 디자인한 소품 하나하나가 청년의 개성과 창의적 표현을 담은 문화가 된다. 청년은 전통을 옛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 느끼게 된다. 결국 전통문화는 세대를 넘어 퍼지며 청년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통을 알리는 문화 전파자가 된다. 이 교수는 "국중박에서의 참여는 청년들에게 전통을 친근하고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과 창의적 표현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